

탄소자원화를 위한 기업 기술 동향

서영중[†], 이종원

롯데케미칼

(yjseo@lottechem.com[†])

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큰 국내외 석유화학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. 롯데케미칼은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. 이를 위한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각 공장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실천이슈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. 이와 함께 CO₂를 자원화하는 신공정의 도입,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탄소자원을 활용한 CO₂ 발생 억제에 위한 노력을 실천중이다. 또한 롯데케미칼은 기후변화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제품에 대한 신규 사업기회의 창출로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대용량 전지기술 연구·개발을 통해 에너지 저장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.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롯데케미칼의 대응 사례 및 전략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.